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8호 【루계 제23070호】 주체99(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 설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힘차게 떨치자

희천발전소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1월에 이어 얼마전 또다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전투원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뜻깊은 4월에 진행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희천발전소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고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시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과시로 된다.

지금 전체 발전소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석수떨어지는 지하막장에 천히 들어가시여 공사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며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2012년까지 희천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희천발전소건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의 하나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이다. 희천발전소가 하루빨리 일떠서야 인민경제전반이 활력에 넘쳐 전진할수 있고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안아올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기어이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희천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12년까지 희천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오늘 희천발전소건설장은 선군천리마를 타고 강성대국에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상징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의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희천의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자들은 당이 바란다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오늘의 1211고지는 희천발전소건설전투장이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맡겨진 전투과제를 훨씬 앞당겨 끝낼 결의밑에 맹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무비의 공격정신이 나래치고 불가능을 모르는 김일성민족의 강의한 정신력이 총폭발되는 곳이 바로 희천발전소건설장이다. 종전같으면 몇년 걸려야 할 방대한 작업량을 불과 몇개월사이에 해제끼며 세월을 주름잡아나가는 희천의 기적은 세기적인 비약으로 광명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우리 조국에서만 창조될수 있는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귀감으로 삼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우리의 대고조진군속도가 되고 건설자들의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일본새가 온 나라에 나래치는 속에 도처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이번에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창조자들인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을 2012년전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여기에는 전체 발전소건설자들이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계속 앞장서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전체 발전소건설자들과 인민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발전소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고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을 다시금 온 세상에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력량, 지휘력량도 꾸려주시였다. 발전소건설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강재와 세멘트, 연유를 비롯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전체 희천발전소 건설자들과 인민들은 올해 정초 눈덮인 건설장을 찾으신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석수떨어지는 지하막장에까지 들어가시여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락관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발전소건설자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선 긍지와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발전소건설과정을 통하여 자기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한목숨바쳐 받들어나가는 우리 일심단결이 어떤 기적을 낳고 선군조선이 강성대국에로 어떻게 비약해나가는가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조선의 비약의 원동력이며 모든 기적과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의 무한대한 위력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는 최고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며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전격적으로 강행돌파해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이다.

전체 발전소건설자들은 선군시대의 대진군속도, 대비약속도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속도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려는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정, 새 기준, 새 기록창조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인민적진군을 선도해나가려는 결사의 의지가 모든 발전소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꽉 차넘쳐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며 발전소건설장 그 어디에서나 대중적영웅주의가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창조방식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희천발전소건설장은 우리 식으로, 우리 힘으로 강성대국에로 비약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축도이다. 지금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세계수력건설력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의 과학적이며 실효성있는 공법들이 끊임없이 창조되여 언제 쌓기와 물길굴뚫기 등 모든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우리 식의 창조방식을 구현해나가는데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

모든 발전소건설자들은 우리 식이 제일이고 우리 힘이 제일이라는 관점, 조선사람은 그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수 있다는 드센 배짱을 지니고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최첨단을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안목, 새로운 높이에서 세계를 굽어보며 발전소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새로운 공법들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것이 발전소건설자들이 틀고나가야 할 량심의 구호이다.

모든 건설자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후대들앞에 떳떳이 자부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관, 후대관을 지니고 세멘트 한삽을 뜨고 한m의 굴을 뚫어도 깨끗한 량심을 바쳐야 한다. 모든 일을 철저히 공법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힘은 대중에게 있고 성과의 비결은 조직사업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자면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희천발전소건설련합지휘부와 현장지휘부, 각 단위의 당, 근로단체 조직들과 일군들은 전투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과 전투지휘를 진공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발전소건설장 그 어디에서나 당과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성과 애국의 열정이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사상교양사업, 선전선동사업을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 일군들은 공사전반에 대한 작전과 장악, 지휘를 책임적으로 짜고들며 완강한 실천력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건설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립체적으로, 창발적으로, 기동적으로 결패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발전소건설자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숙식조건을 비롯한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희천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군인가족들이 가족경제선동대, 가족로력지원대를 뭇고 경제선동과 로력지원을 활발히 진행하고있으며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공사속도가 비상히 빨라지고있는것만큼 련관기업소들에서 담당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전국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내각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희천발전소건설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제 기일안에 어김없이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건설건재부문을 비롯하여 련관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건설장에 세멘트와 강재 등 건설자재와 기재, 발전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물동을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희천발전소건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우리의 미래는 락관적이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빠벨 오브쌴니꼬브 단장 겸 수석지휘자가 27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 료녕성국제우호련락회 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 료녕성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중국 료녕성국제우호련락회 상무부회장인 호봉위단장이 25일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19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군중예술부문 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모든 출연단체들에서 자기들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공연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진정한 예술은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속에 있으며 혁명적예술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동시키고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중문화예술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핀란드 코민포름통보사 인터네트잡지도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방글라데슈 블리쯔신문사는 17일 인터네트에 《김정일총비서 태양절음악회를 관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은하수관현악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태양절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애국가》의 합창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음악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몸과 마음 다 바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움으로써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조직정치사업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하여야 인민들에게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공급해줄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설비들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책임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최대로 분출시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들은 도안의 경공업공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설비들의 현대화와 원료보장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힘껏 떠밀어주고있다.

특히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단위들에 정치선전,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하여 경공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예술선동력량을 파견하여 생산과 기술개건을 힘있게 추동하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게 하는 한편 사리원시를 비롯한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강화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고있다.

경공업혁명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해당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사리원애국수지일용품공장에 내려간 책임일군은 현장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폭발시켜주는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함으로써 이 공장을 본보기단위로 꾸려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통이 크게 벌어질수 있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리원방직공장, 사리원신발공장과 사리원편직공장 당조직에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로동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주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이 공장들의 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뜨겁게 되새겨주면서 그들이 기술혁신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동시에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펴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리원어린이식료품공장의 당조직에서는 사탕갈, 사탕수수로 사탕가루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에서 승리의 비결은 최첨단을 돌파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도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켜 도안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특히 사리원경암술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대중의 열의가 최대로 분출되고있는 가운데 연탄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토대가 더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사리원시안의 식료품, 학용품생산협동조합들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들을 지침으로 삼고 이미 꾸려진 생산공정들중에서 현대화하여야 할 공정들을 확정한데 이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 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장아찌생산공정과 종이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의 설비들을 기술개조함으로써 학용품과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조건을 더 잘 갖추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도에서는 여러가지 경공업제품생산목표를 지난해보다 더 높이 세우고 그것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김 철 소 식

생산공정의 현대화 적극 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지 않고서는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없습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행생산을 힘있게 내미는 한편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전투의 불길을 높이고있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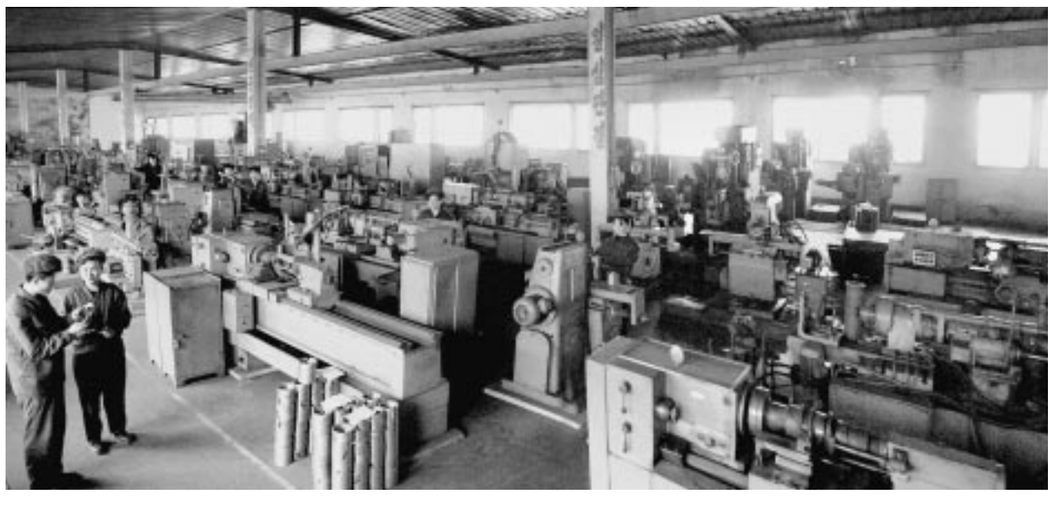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현대화사업이 비록 방대하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우리의 강력한 기술집단과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직한 로동계급이 있는 한 반드시 실천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한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현대화대상들과 단계를 확정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이와 함께 책임일군들이 직접 현대화대상들을 맡아 추진하면서 기동적인 대책들을 앞질러가며 세워 기술준비사업을 다그치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중요생산공정들과 설비들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일군들은 중요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우리 식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현대화대상들을 맡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의 구조와 가동상태, 생산조건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하여 우리 식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불꽃튀는 설계전투를 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해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김철은 멀지 않아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 대야금기지로서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주 창 선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더 높은 생산실적을 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 희천정밀기계공장에서

정 론

《산 울 림》은 시 대 를 뒤 흔 든 다

전례없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어데서나 흥분과 격동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첫막을 열자마자 관중의 심장을 세차게 틀어잡고 폭발적인 경탄과 감화력을 불러일으킨 최고, 최고의 대성공작 경희극 《산울림》,

그 높은 사상성과 인식교양적의의, 특출한 예술적경지와 완벽한 형상력으로 하여 이 작품은 새 세기 주체적연극예술의 기념비적걸작으로, 하나의 눈부신 거성으로 빛발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산울림》 공연을 관람하시고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걸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이 작품에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하시였으며 이 창조집단에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최상의 평가와 감사를 주시였다.

련이어 변이 나고 리상이 더 찬란히 실현되고있는 흥하는 이 나라엔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바뀔수록 좋은 일, 놀라운 사변이 계속 터지고있다.

선군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선들에서 대문을 두드리고 문패를 다는 소리가 울려나오는 속에 우리의 예술도 세계적경지를 자랑하며 련속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있다.

혜성처럼 떠오른 은하수관현악단이 매번 독특하고 황홀한 실력시위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고 음악예술의 관록있는 여러 단체들에서도 경쟁적으로 기세를 올리고있는데 화답하여 이번에는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시대를 들었다놓는 경이적인 창조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창조집단의 비상한 창조정신은 지난해에 연극 《네온등밑의 초병》을 통하여 이미 잘 알려졌다. 거기서 한단계 더욱 도약하여 짧은 기간에 또 훌륭한 걸작을 내놓았으니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편 우리 예술의 전진속도와 전도는 참으로 대단하며 양양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이는 예술은 세계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불과 1시간 43분동안 펼쳐진 무대였다.

그러나 한시대가 흘렀고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우리의 투쟁, 우리의 생활이 굽이쳤으며 우리가 듣고싶은 말, 우리가 만나고싶은 주인공,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싶은 가장 아름다운 리상이 온넋을 틀어잡고 불덩이같이 심장을 두드린다.

정녕 무대가 아니고 연기가 아니고 하나의 만들어진 극이 아니였다.

경희극은 1960년대의 사회주의건설시대를 반영하고있지만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문제들과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그대로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인식교양적의의는 비할바없이 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정서적감흥에 앞서 사람들의 사상을 틀어잡고 정신력에 불을 다는 이 작품의 특출한 견인력과 가치를 단 한마디로 명쾌하게 밝히시며 이 공연은 필독공연과 같고 이 작품은 필독교본과 같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공연을 통하여 우리는 1960년대에 강산을 진감한 천리마《산울림》이 오늘의 강성대국《산울림》으로 메아리친다는 사상적결론을 얻게 된다.

마치도 반세기전에 오늘을 내다보면서 썼다고 생각할만큼 오늘의 우리 시대, 오늘의 우리 생활, 오늘의 우리 리상, 오늘의 우리 정서와 모든 면에서 일치이고 일맥인 이 작품의 세계에 빠져들면 누구나 천리마를 타고 내달릴 생각, 사회주의 우리 생활을 불덩이같은 심장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싶은 열망에 북받치는 격정을 진정할수 없다.

그 강렬한 여운은 그냥 남아 자신이 새로운 인간으로 태여나는듯한 환희와 시대의 한복판에 뛰여들어 몸을 한껏 불태우고싶은 열정으로 가슴을 들먹이게 된다.

산울림!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찬 인간의 목소리에 메아리로 화답하는 산울림, 작게 시작하여 더 크게 울리며 다같이 울려야 더 장쾌하게 울리는 그 산울림에는 전진과 창조의 철학, 리상과 희망의 철학이 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인간의 사랑의 노래, 삶과 투쟁의 진리가 있다.

2시간도 안되는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1960년대와 이야기하며 들끓던 그 시대를 낱낱이 걸어보고 낱낱이 체험해보면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의 사명감과 강성대국건설자의 영예로운 의무에 대하여 엄숙히 가다듬게 된다.

자연의 산울림은 메아리로 끝나지만 인간의 심장에서 터지는 《산울림》은 시대를 진감하고 아름다운 리상을 꽃피운다.

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며 달랑달랑 하늘소가 아니라 질풍치는 천리마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는 어제날의 호소에서 우리는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당의 목소리를 듣고있으며 최첨단을 돌파하여 문명의 상상봉에로 하루빨리 치달아오르자는 강성대국건설시대의 힘있는 부름을 되새긴다.

이루어놓은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해하는 사람은 리상이 높고 목표가 크고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고싶은 일욕심으로 가득찬 선구자들이 울리는 창조의 《산울림》을 들을수 없으며 화답할수도 없다.

우리는 서로 차이나는 두 인간, 두 생활을 웃음속에서, 그러나 귀중한 교훈을 찾으며 보게 된다.

옛날 한심하던 산골이 이만큼 살면 얼싸하지 하면서 더 발전하고 더 문명하게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돌각담을 들추어 뙈기땅이나 얻으려 하는 사람들과 꿈이라고도 할수 있는 희한한 사회주의무릉도원을 그려보면서 범바위산을 개간하여 수십정보의 큰 땅을 통채로 얻을 결심을 하고나선 사람들의 리상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

한무대우에 리상이 높은 청년들과 작은 울타리안에서 맴돌며 시야가 좁고 리상이 낮은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는 장면은 참으로 많은것을 말해준다.

한쪽에서는 도시부럽지 않은 사회주의문화주택들을 새로 보란듯이 일떠세우자고 할 때 그옆에서는 제일 한심한 집들부터 먼저 몇채 보수하고 돌기와나 씌우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넓은 자동차길을 번듯하게 내자고 할 때 그옆에서는 오솔길을 넓혀서 달구지길을 내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놀 놀이터와 유치원, 탁아소를 멋있게 짓자고 할 때 그옆에서는 아이들에게 줄 강냉이《짱튀기집》을 짓자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광경은 웃음속에서 혁신과 자만, 전진과 답보, 적극성과 소극성에 대한 생동한 대답을 찾게 한다.

사람은 심장이 커야 하며 언제나 높이 서서 멀리 보아야 한다.

한 나라, 한 민족의 강성과 부흥, 문명과 비약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와 수령께 충직한 인민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적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리상과 포부가 높은 창조형의 인간들, 만족과 주저를 모르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돌진하는 대담한 실천가들, 정열적인 애국자들이 서있다.

그 시대의 천리마《산울림》이 웨친 계속혁신의 정신은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새로운 천리마《산울림》, 대비약의 메아리로 강산을 뒤흔들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더 높은 창조의 좌표를 세워주고있다.

주체철과 비날론이 폭포치는 소리도 그 혁신의 《산울림》이고 최첨단을 돌파하는 우리 식 CNC화의 불바람도 그 비약의 《산울림》이며 소리치며 일어서는 희천의 언제들과 만수대거리, 《선군 11경》의 사과꽃바다도 그 천지개벽의 《산울림》이다.

아름다운 리상은 자기 땅, 자기 고향,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싹트고 불타오르는 법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환락의 거리, 번쩍거리는 생활도 있지만 위대한 우리 수령, 위대한 우리 당이 펼쳐주고 훌륭한 우리 인민이 창조적로동으로 가꾸어가는 우리의 조국, 우리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새 생활을 창조하는 화목한 대가정속에서 리상도 조국의 부강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으로 펼치고 청춘의 사랑도 나서자란 자기 고향, 자기 일터에 대한 열렬한 애착으로 꽃피우고 작업반이 하나되고 마을이 한마음되고 한덩어리가 되여 사회주의 웃음, 단결의 큰 웃음을 터치는 이런 인민, 이런 세계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가.

《산울림》은 우리 수령님 한평생을 바치시여 가꾸어오신 사회주의 내 조국, 우리 장군님 불굴의 강행군으로 펼쳐주시는 강성대국무릉도원을 온넋을 바쳐 사랑하라, 심장을 바쳐 사랑하라, 피땀을 바쳐 빛내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절히 당부하고있다.

마음껏 꿈을 꾸라.

창조의 나래를 활짝 펴고 당겨올수 있는 모든것을 앞당겨오라.

내려다보면 하늘소요, 올려다보면 천리마다.

자만하면 뒤걸음이요, 분발하면 비약이다.

창조와 혁신, 삶과 투쟁의 교본을 다른데서 찾지 말라.

경희극의 주인공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면 시대앞에서 자기 삶의 위치를 더 값높이 찾을수 있고 행복과 번영에로 가는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수 있다.

시대의 《산울림》은 위대한 수령이 울리고 위대한 당이 울린다.

이 작품은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알곡 100만t 증산으로 맞이하자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건설의 힘찬 노래가 울려퍼지던 천리마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하늘같은 은덕으로 우리 나라에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이 도처에서 일어서고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문명과 비약에로 줄달음쳐달리던 격동적인 시대가 낳은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작품을 온 나라가 다 보게 해야 한다고, 누구나 이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조국건설에 애국의 땀을 바쳐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리하여 자그마한 무대를 벗어나 이 작품은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부강하게 하고 사회주의를 빛내이는 큰 《산울림》으로 메아리치게 되였으며 그 가치는 근 50년이 흐른 오늘도 불멸의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시대의 본질과 력사의 흐름은 혁명의 수령만이 꿰뚫어볼수 있으며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 인민을 흥분시키는 귀중한 정신과 투쟁의 교과서는 위대한 수령만이 마련해줄수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울려주신 그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산울림》을 강성대국의 창조의 《산울림》, 변혁의 《산울림》, 애국의 《산울림》으로 이 땅과 우리 세대앞에 다시금 높이 울려주시였다.

변이 나는 이 시대를 힘있게 추동하고 총진군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킬수 있는 위력한 예술의 무기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연극 《네온등밑의 초병》을 재창조하는것으로써 제국주의의 《향기로운 바람》을 거세찬 혁명바람, 사상의 열풍으로 짓부셔버리게 하신데 이어 올해에는 경희극 《산울림》으로 온 나라를 창조와 비약의 숨결로 높뛰게 하시였다.

사회주의 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원대한 포부와 리상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상상봉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볼줄 아는 사람,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하고 창조하는 애국의 주인공들을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며 시대앞에 내세워주신다.

그이께서는 살아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과 전진만을 아는 용감한 선구자들의 기상이 비낀 《산울림》을 귀중히 여기신다.

일찌기 이 작품이 무대에 올랐을때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면서 출연자들에게 의의깊은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때 벌써 경희극이 안고있는 커다란 시대적의의와 인식교양적감화력을 깊이 통찰하시였으며 오랜 세월 두고두고 잊지 않고계시다가 오늘의 무대에 다시금 대성공작, 대걸작품으로 펼쳐주시였다.

인민군대도 보고 청년들도 보고 일군들도 보고 온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산울림》의 사상과 정신으로 모두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강성대국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일것을 바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천리마시대의 정신이 오늘의 시대에 더 높이 나래치고 그 시대의 투쟁기풍이 오늘도 더 힘차게 살아 맥박쳐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뜻이고 우리 당의 요구이다.

어제날의 작품이지만 오늘의 현실과 맥이 통하는 이 놀라운 일치는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와 우리 장군님의 력사가 일치하고 어제날의 천리마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사상에서 일맥이고 신념에서 일맥이고 정서에서 일맥이고 리상에서 일맥이라는것을 확증해주는 가슴뜨거운 화폭이다.

《산울림》은 시대를 뒤흔들며 천만심장에 강성대국대진군의 불을 달아주고있다.

이제 무대를 떠나 이 《산울림》은 혁신의 불꽃튀는 들끓는 건설장들과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데나를 세차게 울리면서 매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포성과도 같이, 불길과도 같이 조국이 더 높이 솟구치게 할것이다.

조국이 지켜보고 위대한 어머니당이 부르고있다.

어디에나 애국의 《산울림》을 남먼저 울리는 개척자, 선구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하고 그에 화답하는 진군대오가 더 늘어나야 하며 한 단위에서 시작하여 온 나라가 일어서고 여기서도 일어서고 저기서도 내달리며 이쪽에서 장훈을 부르면 저쪽에서 빅장훈을 치면서 조국이 부글부글 끓어번져야 한다.

《산울림》은 병사가 제일먼저 울린다.

우리는 제대배낭을 메고 진달래꽃 피는 산골마을로 찾아온 황석철과 만나게 된다.

혁명의 총대를 잡고 전선에서 조국을 지켜싸우던 그는 용감한 병사인 동시에 환상이 나래치고 꿈이 많은 열정의 인간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강한 그는 자기가 뿌리를 내릴 농촌마을을 오곡백과 무르익는 무릉도원으로 만들 일념으로 온몸을 불길처럼 태우는 훌륭한 청년이다.

산골처녀에게 앞으로 농학박사가 되여야 한다고 상상도 못해본 꿈을 심어주는가 하면 이제 잠자리비행기를 타고 농사지을 날을 우리가 앞당겨와야 한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누구도 엄두를 못내던 범바위산을 통채로 개간하자고 불같이 호소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나 《대고조와 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병사는 빈말을 모른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어제날의 병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본때로 살며 일해야 하는가, 어떤 돌격기풍으로 아름다운 리상을 앞장서 꽃피워야 하는가.

행복이 꽃피고 래일이 그려지는 곳에는 병사가 울리는 《산울림》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병사의 뒤를 따라 용감하게 일어서는 인민의 행진곡이 우렁차게 울린다.

우리의 모든 투쟁과 승리에는 선군의 철리가 흐르고있고 모든 기적과 비약의 바탕에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놓여있다.

병사의 본때, 혁명적군인정신을 그대로 체현할 때 누구나 아름다운 리상을 지니고 미래를 꽃피워가는 참된 애국자가 될수 있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떳떳한 참전자, 위훈자로 승리의 대문안에 긍지높이 들어설수 있다.

혼자서 울리는 《산울림》은 작지만 다같이 울리는 《산울림》은 크다.

우리의 힘은 사회주의의 힘이며 사회주의의 힘은 단결의 힘, 집단주의의 힘이다.

석철이가 처음에 혼자서 범바위산을 향해 울리는 《산울림》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호소에 청년들이 따라나서고 작업반이 따라나서고 온 마을이 따라나서서 마지막에 다같이 울리는 메아리는 얼마나 우렁차고 장쾌한것인가.

그러나 한사람의 목소리가 백사람, 천사람의 목소리로 되자면 그것을 발견하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는 손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이고 그것이 바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의 일군들이다.

동무 혼자만이 품고있는 생각은 의의가 없다고, 대중이 지지하고 호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몰래 설계도면도 그려다주고 방책도 의논해주는 리당위원장,

범람하는 강물을 먼저 건너 바줄을 이어놓은 다음 관리위원장이 앞장에서 붉은기를 들고 건너오라고 하고 그에게 바줄을 놓치지 말고 강을 건너오라고 절절히 당부하는 그의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의 지휘성원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고 혁명적열의를 폭발시키는 심장의 《산울림》을 어떻게 울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동하게 가르쳐주고있다.

일군들이 제구실을 못하면 천리마도 하늘소가 될수 있고 귀중한 새싹도 아지를 펼칠수 없으며 리상이 높고 창조적열의로 끓는 대오도 주춤거릴수 있다.

일군들은 대중의 심장을 울리라.

전진의 송풍기가 되고 《산울림》의 밀뿌리가 되라.

지휘관은 《나를 따라 앞으로!》를 웨치고 대중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일어선다면 그 집단이 터치는 돌격의 《산울림》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수 있으며 그 어떤 기적도 다 일으킬수 있다.

훌륭한 명작은 비상한 창조정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번에 관록있는 국립연극단의 창조집단은 위대한 장군님과 당을 받드는 대고조시대의 인간들에게 어떤 충정을 지니고 어떤 실력전을 벌려 세상을 들었다놓는 큰일을 해제껴야 하는가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창조집단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들은 당의 의도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실천하였다고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 이런 자세, 이런 면모가 더없이 귀중하다.

충실하게!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지극한 충정이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해놓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 결사관철의 기풍이다.

성실하게! 이것은 당과 조국앞에 자기의 실력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아낌없는 피땀을 다 바쳐 기어이 훌륭한 창조물을 내놓는 투철한 책임성과 무한한 헌신성이다.

진실하게! 이것은 가식이나 결치레를 모르고 오직 고결한 량심을 바치는 뜨거운 진정이며 깨끗한 한마음이다.

내용에서도 만점, 연출에서도 만점, 연기에서도 만점, 창조기풍에서도 만점인 《산울림》창조집단의 영웅적투쟁정신과 일본새는 예술부문만 아니라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모든 전선에서 누구나 다 본받아야 할 귀중한 모범이다.

실로 경희극의 위력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자본주의의 어지러운 바람을 쳐갈기는데서도 또 하나의 《산울림》포화를 들씌우고있다.

고상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의 모습이 끌없는 정과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생활의 랑만과 향기가 가득 차넘치는 이 작품의 세계에 심취되느라면 번지르르한 자본주의생활문화가 거짓이고 퇴폐이고 말세이라는 환멸과 저주가 치밀어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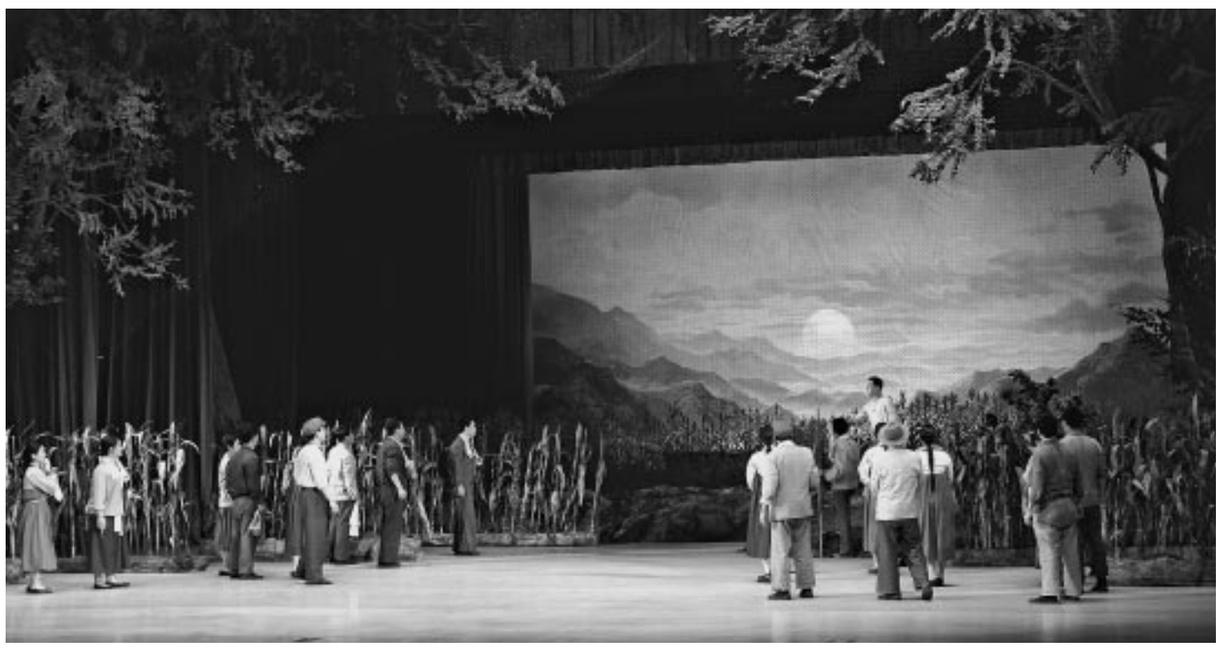
우리의 《산울림》은 인간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를 힘있게 선언하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을 휘황찬란한 미래에로 부르고있다.

사람들이여, 흥분을 안고 기다리시라.

이제 곧 우리의 자랑스러운 혁명적대걸작을 무대우에서 보게 될것이며 누구나 심장이 터져나갈것만 같은 충격과 격동에 휩싸여 탄성을 터치게 될것이다.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위대한 백두령장이 울리는 승리의 《산울림》이 더 우렁차게 메아리치게 될것이다.

동 태 판, 조 혁 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걸작, 생활의 훌륭한 교본—경희극 《산울림》

천리마시대와 오늘을 이어주는 명작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는 속에 오늘은 연극예술부문에서 또 하나의 희한한 결작을 내놓아 온 나라를 흥성거리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국립연극단에서 재창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몸소 보아주시고 사상성은 물론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이 작품에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연극예술부문 작가, 예술인들은 연극혁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성황당〉식연극에 구현된 우리 식의 창조리론을 확고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입니다.》

경희극 《산울림》은 주체50(1961)년에 창조된 작품이다.

이 작품이 태여나던 시기는 우리 당이 지펴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창조된 천리마운동이 대중적혁신운동으로 더욱 앙양되던 력사적인 시기였다.

천리마운동은 당시 우리 인민의 사상의식과 생활에서 놀라운 전변을 가져오고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열정적인 창작활동을 벌리던 당시의 창조집단은 자기 고장의 어느 한 산골마을에서 실지 있은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시대정신이 반영된 경희극작품을 내놓았다.

경희극 《산울림》은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며 시대를 주름잡아 달려나가는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그들의 숭고한 리상, 불굴의 투쟁력을 생동한 생활화폭과 진실한 성격형상으로 밝히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원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나날에 갓 공연을 시작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시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농촌의 현실을 생동하게 형상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해주시였다.

사상적내용에서뿐아니라 예술적면에서도 작품은 천리마시대가 낳은 첫 경희극작품으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갖춤으로써 주체연극예술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였다.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감화력과 생명력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기에 천리마시대의 명작을 재창조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창조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여 오늘은 시대의 걸작으로 또다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천리마시대와 하나의 사상과 의지, 하나의 리상과 포부로 이어진 오늘의 시대에도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는 조금도 손색이 없다. 근 반세기전에 나온 작품이지만 오늘을 내다보고 만든것처럼 인식교양적의의가 대단히 큰 명작이다.

경희극은 생활소재로부터 시작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은 물론 극적인 호기심과 기대감이 강한 인간관계, 농촌고유의 정서가 구수하고도 감칠맛있게 흘러나오는 성격형상에 이르기까지 형상전반이 그야말로 독특하고 참신하다.

예전에는 사람 못살 고장으로 치부되던 산골마을에 협동화의 열매가 맺어져 집집의 쌀독이 넘쳐나고 가장집물이 늘어나게 되자 일부 일군들은 저도모르게 현실에 만족하여 더 높고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방법에 매여달린다.

작품은 첫시작부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전히 승리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던 당시의 사회력사적 환경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한시바삐 철저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상정신적병집이 무엇인가를 관리위원장 송재와 작업반장 달수의 형상을 통하여 사색과 웃음속에 보여주고있다.

부침땅면적을 적극 늘일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사로잡힌 송재와 달수는 지난날에 비하면 산골농민들의 처지가 《룡》이 되였다고 밭머리돌각담이나 추어내고 토지리용률을 높이는것으로 만족해한다.

하기에 그들에게는 천리마가 아니라 하늘소를 탄 걸음으로 점차 시대에 뒤떨어지고있는 심각한 현실이 보이지 않았으며 범바위산의 땅을 부침땅으로 개간하자는 제대군인청년 석철이가 공상에 몰젖고 소총명에 들뜬 《교양대상》으로 여겨졌던것이다.

작품은 아무리 혁명과 건설에 유리한 사회정치적환경이 마련되였다고 하여도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높은 리상과 포부를 내세우고 실천해나가지 못하면 우물안의 개구리로 더 나아가서 본의아니게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된다는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작품에 담겨진 교훈의 심각성은 혁신과 보수, 새것과 낡은것과의 극적인 대조속에 더욱 선명히 밝혀지게 된다. 이 예리한 대조는 조합의 전망을 놓고 한 뜨락안에서 펼쳐지는 청년들과 보수적인 일군들의 판이한 두 토론광경을 통해서도, 사품치는 강물앞에서 그것을 극복할 서로 다른 방도들을 내놓는 성격형상들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명랑한 웃음과 기지있고 재치있는 해학으로 당대의 시대상을 시종일관 방불하게 반영한 형상세계속에는 결코 어제날만이 아니라 오늘의 투쟁과 생활속에서도 진리로 삼아야 할 의미깊은 사상이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여도 작품의 진수를 이루고있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좌우명이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여 만세나 부르는 사람은 불피코 시대의 락오자가 되지만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지니고 그것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분발하는 사람은 시대의 선구자로 앞장서나갈수 있다. 이것은 작품의 사상이기 전에 기적과 혁신으로 세기를 주름잡아온 우리 혁명의 귀중한 경험이며 오늘의 대고조현실이 요구하는 투쟁기풍이고 사고방식이다. 당정책을 생명처럼 간직한 사람에게는 작품의 주인공 석철이처럼 사품치는 격랑도 웃으며 날아넘을 배짱이 용솟음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관리위원장 송재나 달수반장과 같이 승리의 지름길을 앞에 두고서도 에돌아가고 물러설 생각부터 앞세우게 된다는것은 생활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힘차게 호소한 당의 전투적부름을 자기의 리상과 포부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앞에서 동요하지 않고 집단주의위력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는 불굴의 공격정신을 우리는 평범한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게 된다. 참으로 대고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적창조물인 경희극 《산울림》은 우리 시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오늘을 비추어보게 하는 생활의 《거울》로 될것이며 주인공들의 량만적이고 기백넘친 투쟁모습은 강성대국건설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기적에로 고무격려해주는 미더운 동지들의 모습으로 소중히 간직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차 수

력사적인 첫 경희극작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합니다.》

천리마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던 1960년대초에 창작공연된 《산울림》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보아주신 력사적인 경희극작품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천리마의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던 당시의 벅찬 현실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반영하고 그들의 숭고한 지향, 전투적기백을 힘있게 고무할수 있는 현실주제의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경희극 《산울림》이 창작공연되였다.

주체50(1961)년 10월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희극 《산울림》을 보시고 최근 년간에 나온 작품들가운데서 우수한 작품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농촌의 현실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그 이듬해인 주체51(1962)년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품이 경희극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누구나 다 지금까지 거둔 성과에 자만할것이 아니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게 하는 작품이라고 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은 주체적경희극창조의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의 연극예술분야에서는 지난 시기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경희극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천리마시대가 낳은 첫 경희극작품인 《산울림》은 동지적협조와 단결을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당시 우리 나라 경희극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본사기자

웃음속에 교훈을 주는 명장면

성공한 연극작품에는 의례히 깊은 인상을 남기는 훌륭한 장면들이 있기마련이다. 경희극 《산울림》 역시 두번세번 다시 보고싶은 좋은 명장면들이 적지 않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매 장면에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알맹이만을 담아야 장면내용이 전형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형상을 철학적깊이가 있게 할수 있습니다.》

작품의 3막에 서로인의 집앞에서 펼쳐지는 깊은 밤의 장면은 누구나 폭소를 터뜨리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멋쟁이장면이다.

청년들의 혁신안을 발벗고 지지해나선 서로인네 집과 판리위원장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옳다하는 달수작업반장네 집은 서로 이웃하고있다.

밤도 퍽 깊었는데 청년들은 주인공 석철이가 제기한 범바위산개간문제를 토의하러 서로인의 집에 모여든다. 여기에 관리위원장 송재가 나타난다. 옆집방안에서 자기가 반대한 범바위산개간문제를 놓고 청년들이 방도를 찾고있는줄을 송재는 전혀 모르고있다.

달수의 딸 금단에게 석철이를 《교양개조》할 과업을 주었던 송재는 이날 밤 자기의 계획대로 석철에 대한 《교양》이 제대로 되여나간다는 자기식의 판단에 흡족하여 작업반장 달수부부를 불러낸다. 금단에게 석철이를 《교양》할 기회를 마련해준다고 달수부부를 밖에 불러낸 송재는 그들을 억지로 데리고 마을주변을 돌면서 시간을 끈다. 그러다가 서로인의 집뜨락앞의 바위우에 주저앉는다.

조합원들은 자고 간부들은 조합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 밤인가고 잔뜩 제 기분에 들뜬 그는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발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있는 조합의 전망을 달수에게 털어놓는다.

이와 대조되면서 서로인의 집안에서는 석철이가 펼쳐놓은 마을의 전망도앞에서 래일의 포부와 리상을 설계하는 청년들의 열정넘친 모습들이 보인다. 천리마를 타고 래일을 향해 줄기차게 내달리려는 선구자들의 포부와 열정, 하늘소걸음밖에 못하면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는 보수주의, 소극성의 아득한 차이가 하나의 무대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장면은 착상도 기발하고 교양적의의도 큰 그야말로 명장면이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동네의 모든 집들을 문화주택으로 일신하고 마을길을 번듯한 도로로 전변시키자고 환희에 넘쳐 떠들썩 하는데 다른쪽에서는 송재가 가까스로 졸음을 참아가고있는 달수부부에게 낡은 집들부터 하나씩하나씩 보수하고 좁은 마을길은 달구지길로 넓히자고 흐뭇해서 이야기한다. 이 장면은 웃음속에서 매우 심각한 교훈을 새겨안게 하고있다.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농촌건설의 전망에 대한 론의이지만 어이하여 그것은 그렇듯 판이한 차이를 가져온것인가. 천리마를 타는가, 하늘소를 타는가 하는것은 포부와 리상에서부터 결정된다. 비록 힘겹고 아름찬 일감이지만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조합을 무릉도원으로 꾸리려는 청년들의 지향은 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하면서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일이나 궁냥하는 송재의 소극적인 사고방식은 관중의 웃음을 자아낸다.

인상깊은 성격형상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에서 종자도 인물의 성격을 통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실한 성격창조를 떠난 극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에 대해 말할수 없다. 그렇다면 천리마시대를 배경으로 한 경희극 《산울림》에 어떤 개성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가.

《하늘소》가 《천리마》로 되기까지

작품에 등장하는 긍정인물들과 부정인물들은 통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천리마를 탄 선구자들과 하늘소를 탄 보수주의자들로 평할수 있다.

제대배낭을 풀어놓자마자 산간마을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변모시킬 커다란 포부로 가슴끓이며 처음부터 범바위산개간을 주장해나서는 주인공 황석철의 형상은 시종일관 적극적이면서도 모든것을 밝고 명랑한 웃음으로 처리하는 기지적인 인간으로 그려진다. 그런가하면 같은 제대군인출신인 리당위원장 함락주는 말보다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새땅찾기에로 불러일으키는 리지적이고 침착하면서도 근면한 인물로 형상되고있다.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오직 앞으로만 내달리려는 이들의 행동은 송재, 달수와 같은 《자만자족병》에 걸린 마을의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시시각각 부닥치게 된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전변되였으니 이젠 그저 돌각담이나 들추고 부침땅리용률이나 높이면서 조금씩 전진하자는것이 그들의 낡은 견해이다.

극중인물들이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어떤 격렬한 론쟁이나 억지주장같은것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 가벼운 웃음으로 현실에 자만도취되여 저도모르게 하늘소걸음을 하는 부정인물들의 낡고 뒤떨어진 측면을 바로잡아주는데 바로 긍정인물들이 지닌 독특한 성격적매력이 있다.

당의 농업정책을 그 어떤 생경한 론리나 구호로써가 아니라 서로인네 집에서 가져온 자그마한 당콩주머니와 신문자료를 가지고 설득력있게 차근차근 인식시키는 리당위원장의 행동은 얼마나 감화력이 큰것이며 보수주의에 물젖은 송재와 달수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천리마 타고과도 달릴데가 없네, 달랑달랑 하늘소가 제격이지.》라는 식의 해학적인 수법으로 깨우치려는 주인공 황석철의 기지있으면서도 재치가 느껴지는 대사형상은 얼마나 신통한가.

긍정인물들의 이러한 재치있으면서도 해학적인 성격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려는 그들의 아름다운 리상과 고결한 인생관에 바탕을 둔것으로 하여 더더욱 부각되고있으며 결국에는 일하자는 사상은 확고하지만 목표가 높지 못한탓에 하늘소걸음,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람들을 개진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역할을 놓게 된다.

왜 웃음이 절로 나오는가

경희극 《산울림》을 주의깊게 보느라면 극중인물들이 특별히 관중들을 웃기려고 하는 기색이나 과장된 연기를 전혀 느낄수 없다. 그러나 작품은 시종일관 관중들의 웃음집을 건드린다.

웃음집을 터뜨리는 근본장본인은 물론 판리위원장 송재이다. 소극성에 사로잡힌 자기가 진짜교양대상인줄도 모르고 선진분자인 석철이를 교양개조하려고 접어들면서 금단이에게 직접 과업까지 주는 송재의 모순된 사고방식과 행동은 웃음을 낳게 하는 기본요소로 된다. 웃지 않고는 견딜수 없게끔 독특한 성격을 창조한 극중인물들은 이밖에도 내성적이며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인 처녀주인공 금단, 더펄더펄 하면서 판리위원장과 작업반장의 틈바구니에서 분주히 뛰여다니는 덕실, 늘 노래부르며 도시에 날아갈 꿈만 꾸는 들뜬 사양공처녀 옥음 그리고 시골토배기 녀성의 냄새가 푹푹 나는 2작업반장 달수의 처 송씨를 들수 있다. 처녀주인공 금단이가 사랑으로 인한 오해로 남몰래 고민하면서도 당정책적선에서 행동하는 황석철을 적극 지지하는 대바르고도 속깊은 처녀의 형상으로 안겨온다면 덕실은 제딴에는 남보다 개명한것처럼 분칠도 하고 파마도 하며 활개치는 개방적인 녀성으로, 황석철이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들끓는 시대의 흐름에 합류되여 천리마의 기수로 되는 역인물로 그려진다. 이밖에도 꿈많은 처녀시절이라 마을을 훌륭하게 꾸려나가는 길에 극에 나오는 처녀들의 생활에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무지개도 비끼게 된다. 그 무지개가 서로의 오해로 하여 가뭇 사라질듯 하면서도 마침내는 청춘의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로 가득찬 행복의 무지개로 더욱 선명하게 펼쳐지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사랑을 해도 고향산천을 위한 사랑,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사랑을 하라. 발은 자기 땅에 든든히 붙이고 눈은 더 높은 곳을 내다보라!

이런 숭고한 리상과 아름다운 인생관에 뿌리를 둔것으로 하여 청춘들의 사랑은 그리도 고결하게 느껴지는것이며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는것이다.

관중들의 웃음보가 절로 흔들거리게 하는 송씨의 성격형상 또한 특색있다. 남편의 뒤를 달랑달랑 따라다니며 그저 집주인의 일이라면 다 옳다고만 생각하고 집안의 외동딸인 금단에게 어떻게 하면 황석철이와 같은 듬직한 제대군인총각을 맞세울가 하고 원심을 쓰는 까닭에 그는 관리위원장과 남편이 전망도를 펼쳐보이며 신명이 나서 마을의 래일에 대해 터놓을 때에도 뚱딴지같이 도배지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사위감소리를 불쑥 꺼내는것과 같은 희극적인 연기를 련속 펼쳐보인다. 참으로 나이와 성격, 취미와 지식정도가 서로 다른 이런 인간들이 폭풍쳐 내달리는 천리마시대의 거세찬 격류에 파감히 뛰여들어 사회주의농촌의 선구자들로 다같이 성장하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속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본사기자 박 옥 경

사회주의농촌맛이 나는 진실한 연기

나무꼬챙이로 땅우에 금을 그어가며 착상을 하고 설계를 하는 청년들, 쉴참에 삶은 감자의 껍질을 벗겨먹는 생동한 세부, 성수가 나고 사기가 날 때에는 신은 고무신마저도 거치장스러워 벗어버리고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농촌처녀들의 순박하고 천진란만한 모습, 제대군인 석철의 등에 업혀 범바위산으로 오르는 서로인의 연기는 인물의 고유한 개성이 살아나는 참으로 신통한 연기라고 볼수 있다.

무대에서 연극배우는 공연을 하는 전기간 실지 자기가 맡은 인물로 되여야 한다. 연극배우는 무대에 나와서 연기하는것이 아니라 실지 인물이 활동하는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여야 산인간의 진실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농촌물주제의 작품에서 진짜농촌맛, 생활맛은 농촌현실에 맞는 무대공간을 조직하고 농민의 외형에 어울리는 의상이나 소도구, 대사나 억양을 살린다고 하여 저절로 돋구어지는것이 아니다.

인간성격의 본질을 이루는 인물의 사상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진지한 탐구과정, 인물이 살며 활동하는 시대를 단순한 목격자로서가 아니라 체험자가 되여 그 시대와 함께 투쟁하려는 혁명적열정이 없이는 개성적이며 진실한 연기형상을 창조할수 없는것이다.

이들의 연기형상은 배우들의 순수 예술기교나 재간이 낳은 결과라고만 볼수 없다.

배우들에게 있어서 경희극 《산울림》에 펼쳐지는 천리마시대는 결코 먼 과거의 시대가 아니였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몸바쳐 투쟁한 천리마시대 인간들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선군시대 창작가, 예술인들의 인생관의 참다운 일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무대우에 천리마시대의 진실한 화폭을 펼쳐놓을수 있은것이다.

본사기자 리 수 정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신의주초물생산협동조합에서

신의주초물생산협동조합에는 50여년을 두고 전해지는 《관리위원장수첩》이 있다. 거기에는 조합의 매해 인민경제계획과 그 수행정형이 밝혀져있을뿐 특별한 기록은 없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민경제계획은 해마다 늘어났으나 그 계획수자들곁에는 하나같이 《수행하였음》이라는 다섯글자만 간단명료하게 써있는것을 볼수 있다. 이처럼 당사자들도 범상하게 여긴 조합의 일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시고 온 나라 인민앞에 내세워주시였으니 어찌 이곳 종업원들의 감격이 크지 않을수 있으랴. 그 사연을 들려주는 조합관리위원장 차화숙동무의 이야기는 격정으로 자주 끊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오직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였던 지난해 11월 어느날 차화숙동무는 신의주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아주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가슴을 두근거리였다.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바로 자기네 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이 놓여있었는데 잠시후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것을 보아주시게 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조합제품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가? 기뻐하실가?)

울렁이는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며 왕골이며 강냉이오사리 등 농부산물들과 파수지, 파섬유를 비롯한 유휴자재를 가지고 만든 자기 조합의 제품들을 걱정어린 시선으로 둘러보는 그의 눈앞으로는 지나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났다.

…

《관리위원장동지, 어제 직매점에 들려보았는데 우리 조합에서 만든 초물모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자생산을 계획보다 더 늘이는것이 어떻습니까?》

《저자바구니도 한가지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가지 모양과 크기로 만들면 인민들이 더 좋아할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의 이런 창발적의견으로 지난 기간 조합제품의 가지수는 무려 백수십가지로 늘어났고 모양과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게 되였다.

생산이 늘어나자 조합의 생산건물들이 비좁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차화숙동무는 대담하게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작업환경을 갖출 결심을 하였다. 그가 작성한 돌격대명단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조합원들을 한바퀴 돌고나서 다시 관리위원장앞에 놓이였을 때였다. 누구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전 반대입니다. 왜 제 이름은 없습니까?》

오랜 기능공인 김성옥동무였다. 그의 뒤를 이어 몇사람이 또 일어났다.

《제 이름도 빠졌습니다.》

차화숙동무는 잠시 머밋거렸다. 사실 생산정상화를 위해 몇사람은 돌격대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일이 이렇게 번져질줄 몰랐던것이다.

다같이 힘을 합쳐야 생산도 개건도 더 잘되지 않겠는가고 하는 조합원들앞에 관리위원장은 아예 출근부를 꺼내들고말았다.

《좋아요. 그럼 이걸 〈돌격대명부〉로 합시다.》

조합건물들이 개건되고 생산도 더 활성화되여가던 다음해 봄 어느날 아침이였다. 조합원인 리영옥동무의 가정에서는 내외간에 이런 말이 오갔다.

《여보, 오늘 아침엔 웬 책가방을 들고 나가오?》

《대학공부하러 가는걸요.》

《원, 마흔이 퍽 넘은 나이에 무슨 대학공부를 한다고…》

《우리 조합원들모두가 신의주공업대학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였답니다. 이제 두고보시라요. 우리가 일도 하고 대학공부도 해서 돗자리도안이랑 꽃무늬형태설계랑 콤퓨터로 척척 해내는걸.》

어느 조합원의 가정에서나 이런 말이 오간 그날은 조합원들의 첫 등교일이였다.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어깨나란히 대학으로 가는 모습은 온 시내를 설레이게 하였다. 조합에서 더 좋은 제품들이 쏟아질것이라고 누구나 기뻐하며 축하해주었다.

일할수록 배울것이 많은것처럼 배울수록 할 일도 늘어났다. 조합에서 강냉이오사리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것도 바로 그무렵이였다.

사실 강냉이오사리는 좋은 초물제품원료였으나 염색기술이 걸려 이전에는 제품화실현이 잘되지 않고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문제없었다. 조합원들은 강냉이오사리로 민족적색채가 짙은 침대깔개도 만들었고 여러가지 형태의 바구니들과 색무늬를 놓은 휴지통을 비롯하여 갖가지 초물제품들을 척척 만들어내였다. 그러던 어느날 하루작업이 끝날무렵 1작업반에 나갔던 차화숙동무는 그곳 작업반장이 제품을 만들고 남은 원료부스레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웬일인가 물었더니 많지 않은것이지만 막상 버리자고보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런다는것이였다.

가슴이 뭉클하였다. 강냉이수확철이면 여기저기로 수십리길을 오가며 제품원료를 수집하느라 해가 언제 저무는지 모르고 길가에 흘린 왕골줄기 몇오래기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온 조합원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주앉아 생각해낸것이 원료부스레기로 꽃보라를 만들자는것이였다.

《야！정말 그게 좋겠습니다.》

신통한 궁냥이라고, 이제는 부스레기 한점까지도 버리지 않고 다 쓰게 되였다고 조합원들은 환성을 터치였다.

도시에 흔한 파수지로 만든 크고작은 단추며 대학생모표와 소년단휘장, 빨간 오각별을 비롯하여 좀안에도 들지 않는 제품들에도 버리면 오물, 모으면 보물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적은 자재로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마음들이 깃들어있었다. …

(하지만 나라일을 돌보시느라 누구보다 바쁘신 위대한 장군님앞에 우리 조합의 제품은 너무도 작고 하찮은것이 아닌가.)

차화숙동무는 자신이 민망스러워났다.

(원참, 뭘 한게 있다구…)

차화숙동무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초물제품진렬대앞으로 다가오시였다. 오시여서는 저자바구니를 팔에 걸어도 보시고 왕골로 만든 농립모는 손수 써보기도 하시면서 조합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살펴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의주초물생산협동조합에서 농토산부산물들과 여러가지 페설물로 제품들을 만들어 인민생활에도 이바지하고 나라살림살이에도 보탬을 주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조합일군들이 인민의 복무자라는 자각을 안고 꾸준히 노력하여 좋은 일을 하고있다고 거듭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아버지장군님！》

차화숙동무는 꿈만 같은 치하의 말씀, 너무도 파분한 평가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이 하고있는 그 작은 일을 그리도 크게, 더없이 소중히 여겨주실줄은 정녕 몰랐던것이다.

아주 좋은 일！

그 말씀에는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다 크게 여기고 빛내여주시며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실려있었다.

그날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뵈온 차화숙동무로부터 장군님의 뜻깊은 평가의 말씀을 전해들은 조합원들은 크나큰 격정에 어깨를 들먹이였다. 그러면서 장군님의 뜻대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오늘도 신의주초물생산협동조합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조합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허명숙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벽성군종이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우리 군 제품》에 깃든 열정

지방산업공장이란 일반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자기 고장 인민들의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자기 지방뿐아니라 전국에 소문나기도 한다.

벽성군종이공장 역시 크지는 않지만 이 고장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공장이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벽성군사람들이 《우리 군 제품》이라고 부르는 종이들과 학습장들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일찌기 우리 수령님의 구상에 의하여 지방들에 나온 종이공장의 하나인 벽성군종이공장에서 쏟아져나오는 종이와 학습장들은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15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화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였다. 이 소식은 종이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속 전진, 계속혁신할 때만이 언제나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방산업공장으로 될것이 아닌가.)

공장에서는 그날중으로 돌격대를 무었다.

—우리 힘으로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활성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이런 불같은 열정을 안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한해를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왔다.

생산건물도 늘이고 설비들도 새롭게 갱신하느라 누구나 드바쁘게 뛰여다니던 어느날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진 많은 일감을 두고 근심하는 공장일군의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걱정말라고 손을 내젓는 종업원모두를 대표하여 제대군인출신의 작업반장 정금철동무가 말하였다.

《일감이 많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일한다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고 하면서 초소와 건설장마다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인민군군인들처럼 살며 일할 각오드높이 생산과 현대화를 다같이 밀고나갔다. 이런 투쟁속에 생산을 정상화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공장안팎이 일신되였다.

자력갱생의 불길드높이 자체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이 들어앉았고 흐름식생산공정이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였으며 지방원료를 리용하여 종이의 질을 개선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방안들도 연구도입되였다. 그에 토대하여 올해초부터 공장에서는 질이 훨씬 좋아진 종이들과 학습장들이 쏟아져나와 군안의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우리 군 지방산업공장에서 우리 고장의 원료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우리 제품》이라고 기뻐하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공장종업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맹세가 불타오른다.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자. 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더 가깝고도 친근한 지방산업공장이 되자.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7일 진풍부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과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총국장과 일행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총국장은 방문록에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남기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꾸바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태양절에 즈음하여 호쎄 마누엘 갈레고 몬따노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7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의춘외무상, 김용진교육상,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호쎄 마누엘 갈레고 몬따노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꾸바인민이 조선인민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현명하고도 세련된 령도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을 령도하시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꾸바인민이 뜻깊은 명절을 함께 기념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꾸바당과 정부, 인민의 신뢰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꾸바와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령도밑에 꾸바정부와 인민이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운영개시행사 진행

김만유병원과 각 도인민병원들사이에 수립된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운영개시행사가 27일 김만유병원에서 있었다.

리봉훈 보건성 부상, 김만유병원 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진풍부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과 일행, 싸베쉬와 푸리 주조세계보건기구 대표와 대표부성원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리봉훈부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의 협조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수립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기구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봉사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중앙과 도급병원들사이에 콤퓨터망에 의한 먼거리영상협의를 통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대책을 신속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와의 긴밀한 협력밑에 봉사체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진풍부진총국장이 연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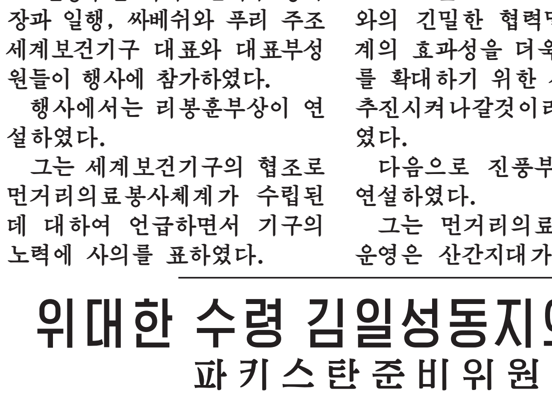
그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운영은 산간지대가 많은 조선의 현실에 부합되는것이라고 하면서 정보기술을 리용하여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확대하려는것은 훌륭한 구상이라고 말하였다.

먼거리의료봉사체계는 리로운 점이 많다고 하면서 그는 이미 수립된 봉사체계를 발전시키며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총국장을 비롯한 세계보건기구 성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성과적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파키스탄준비위원회대표단 도착



신드주의회 의장인 니싸르 아흐메드 후로 준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파키스탄준비위원회대표단이 2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아리프 마흐무드 주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정풍화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7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새겨가는 삶의 자욱

평양시고려병원 의사 김옥순동무

그는 좀처럼 자기에 대하여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가지고있는 부피두터운 여러권의 책에서 한 녀성보건일군이 소문없이 걸어온 헌신의 길을 더듬어볼수 있었다. 그 책은 김옥순동무가 50여년간 사용하고있는 《정성일지》였다. 거기에는 병원집단은 물론 환자들과 그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고려병원 침구과 의사 김옥순동무가 지난 수십년간 바쳐온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아름답게 수놓아져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일군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환자를 정성껏 치료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성일지》의 한 페지를 펼치였다. 거기에는 여러해전에 있었던 사실이 적혀있었다.

《우리 과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한 녀성이 실려온 때로부터 어느덧 한달이 되였다. 그는 난치성병을 앓고있는 환자이다.

과성원모두가 달라붙어 한달동안 집중치료전투를 벌렸는데도 환자상태는 호전되지 않는다. 담당의사인 나는 누구보다 안타깝고 마음이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일으켜세울수 있을가?》

우리는 뜻밖에도 그때의 이야기를 김옥순동무를 만나보러 병원에 찾아온 한 처녀에게서 듣게 되였다. 그는 김옥순동무를 《큰어머니》라고 부르고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여러해전 그 환자의 딸이였다.

…

날이 갈수록 김옥순동무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자기 힘으로 환자의 병을 꽤 고쳐낼수 있을가 하는 위구심이 때없이 머리를 쳐들었다. 낮에 밤을 이어 참고서적들을 탐독하며 치료방법을 모색해나가던 어느날 아침 그는 환자의 머리말에서 한장의 사진을 보게 되였다. 전연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한다는 그의 아들사진이였다.

김옥순동무에게는 하루종일 그 사진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인민군후방가족을 어떻게 해서나 일으켜세워야 한다는 각오가, 그것이 곧 조국방선을 더 굳건히 다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김옥순동무를 비롯한 병원집단의 지극한 정성속에 마침내 환자는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되였다. 그러나 김옥순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누구나 환자를 다시 일으켜세운것만도 대단한 일이라고 했지만 김옥순동무의 마음에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문을 나서던 환자의 모습이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날 저녁부터 퇴근길을 환자의 집으로 돌렸다. 치료는 물론 환자의 집안일까지 도와주며 색다른 음식 한가지 생겨도 환자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다. 환자치료에 열중하다가 밤늦게 집으로 간적은 또 몇번인지 모른다. 그렇게 4년, 드디여 환자는 완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였고 대지를 활보하게 되였다. 10년만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다시 먹게 되였다고 하면서 환자의 딸은 김옥순동무에게 안기며 울면서 말하였다. 이제부터 선생님을 《큰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번질수록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가슴을 울리는 한 녀의사의 《정성일지》였다.

《1984년 4월 15일

오늘 나는 색갈고운 신발을 한켤레 사가지고 모란봉구역 긴마을1동에 살고있는 리금주동무의 집을 찾았다. 오래전에 병원에서 퇴원한 그가 지금 몸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싶어서였다. 만나보니 건강하였다. 나는 무척 기뻤다. 이런 때가 의사에게 있어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 나를 〈언니〉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이하는 그를 보느라니 리금주동무를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당시 리금주녀성은 다리에 심한 장애가 와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온 그의 어린 딸이 우리 엄만 무슨 주사를 맞으면 걸을수 있는가고 물었을 때 김옥순동무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보건일군의 사명과 책임감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명약이 있단다. 그것은 의사의 정성이란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날부터 김옥순동무는 경험을 살려 고려의학의 전통적치료방법인 침과 뜸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정열적으로 진행하였다.

힘들 때마다 그는 생각하였다. 자기네 4형제를 모두 대학공부시켜주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몫할수 있도록 어엿하게 키워준 고마운 당의 은덕을.

리금주녀성이 석달만에 완치되였을 때 김옥순동무는 그와 함께 만수대언덕으로 올랐다. 그날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였다.

(어버이수령님, 또 한명의 환자를 완치시켰습니다！)

《정성일지》에는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던 그날의 김옥순동무의 감격도 비껴있었고 자기를 전국선군시대공로자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불러주시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고 여러차례 은정넘치는 감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한 녀의사가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던 모습도 어려있었다.

김옥순동무는 그렇게 《정성일지》를 써나가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아름다운 생의 흔적을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순도

스웨리예 스톡홀름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

만경대 방문

【평양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니클라스 스반스트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예 스톡홀름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더욱 푸르러지는 교정

선천교원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대학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가고있다.

올해의 식수절을 계기로 하여 대학적으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벌어졌다.

대학일군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제때에 보장하면서 누구나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나무심기를 실속있게 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온 대학이 떨쳐나 울타리주변과 학습터, 교사주변에 수백그루의 나무들을 심어 교정의 풍치를 더욱 돋구었다. 이곳 교직원, 학생들은 심은 나무들을 더 잘 가꾸는 사업에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로동통신원 김혜명

마음은 언제나 희천에

강동군남새식료품종합수매상점 부원 백영화동무는 지난 4월 중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다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 눈시울을 적시였다.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희천발전소건설이 시작되던 때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준 그였지만 어쩐지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였다.

그는 재봉기앞에 마주앉았다. 장갑이며 어깨받치개 등을 더 많이 만들어 건설자들에게 안겨주고싶었던것이다. 남편인 문명호동무도 안해의 일손을 도와나섰다.

사르륵사르륵… 밤은 깊어가도 고르로운 동음은 멎을줄 몰랐다.

그들에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신 희천의 굽이굽이 령길들과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을 따라걸으며 흥분으로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던 나날들이 더듬어졌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며 발전소건설력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해가는 미더운 건설자들을 위해 무엇을 아끼랴.)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백영화동무는 재봉기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밤깊도록 재봉기를 돌리자니 힘들고 피곤하였지만 일손을 놓지 않았다.

며칠밤을 지새우며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건설자들에게 보내줄 때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피여났다.

희천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바래우며 그는 결의다졌다.

(발전소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치리라！)

박준성

높은 혁신적안목과 실천력으로

기술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려

흥남제약공장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이 의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공업시험소의 일군들은 모든 기술자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종자로 쥐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으며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서 큰 은을 낼수 있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이곳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실리있는 생산방법들을 연구완성해가고있으며 그 과정에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고있다.

어느 한 직장의 생산공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시험소의 기술자들은 기술혁신으로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들은 불타는 탐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마침내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여러종의 수입원료를 쓰지 않는 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였으며 제품거둠률도 훨씬 높임으로써 의약품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로동통신원 리두한

대중의 앞장에서

신천군 호암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 정남숙동무는 대중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며 농사일에서 실적을 내고있다.

그는 남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작업반원들모두가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시대적책임감을 자각하고 떨쳐나서도록 하는 한편 앞선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있다.

그의 실천적모범을 따라 작업반원들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결실을 마련하기 위해 당면한 영농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로동통신원 정순화

관광재개거부는 북남관계파탄행위

금강산관광재개를 거부하는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날로 더욱 험악한 파국상태에로 치닫고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북남관계문제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북남사이의 화해, 협력의 상징이며 시작된 때로부터 북남관계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온 민족의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관계에 활력을 더해주며 10년나마 진행되여온 금강산관광이 현 남조선당국의 의도적인 책동으로 파탄상태에 이른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악화된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개선하기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별의별 구실을 다 들고나오며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악랄하게 가로막았기때문이다. 이로 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북남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명산, 세계의 명승지를 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심정을 헤아려 오래전에 금강산관광길을 열어주었다. 당시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이 강화되여 정세가 매우 긴장하고 첨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북과 남사이에 쌓인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풀고 화해와 협력, 관계개선을 이룩하기 위해 관광을 승인해주었다. 만일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민족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의 관점에서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정세가 긴장한 속에서 그것도 쌍방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지역을 관광지로 뚝 떼줄 용단을 내릴수 없다.

실제로 금강산관광을 발단으로 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사업들이 활력을 띠였고 그것은 조국통일위업을 고무추동하였다. 지난 년간들에 금강산을 다녀간 남조선인민들이 《평생소원을 풀었다.》, 《민족의 자긍심을 느낀다.》, 《금강산관광이 더욱 활성화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련북통일운동에 대중적으로 떨쳐나선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는 북남관계개선으로 이어졌고 북남관계의 개선은 금강산관광의 활성화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금강산관광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였다. 그들은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켜보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관광대가의 군사비전용》에 대해 떠들어댔는가 하면 《남북협력기금》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지시켜보려고 비렬한 책동에도 매달렸다. 보수패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게 되자 그 무슨 《퍼주기》니 뭐니 하고 북남사이에 진행되여오던 협력사업들에 무작정 차단봉을 내리였다. 나중에는 북남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에까지 대결의 마수를 뻗치며 그것을 방해하였으며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켜버렸다. 남조선보수패당이 금강산관광을 부정적으로 대하며 그것을 악랄하게 가로막음으로써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 북남관계는 더욱더 파국의 길로 치닫지 않으면 안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을 기어이 파탄시키고 북남관계를 언제까지나 대결상태에 못박아두려는 남조선집권세력의 음흉한 속심은 그들이 금강산관광재개와 관련한 우리의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무례한 망동을 부린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보수패당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사이에 금강산관광재개와 관련한 합의문건이 체택되자 터무니없이 《민간업자와의 합의는 인정할수 없다.》, 《당국간 합의가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고 심술을 부리면서 그 리행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우리가 이미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를 준 《3대조건》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 금강산관광재개에 계속 장애를 조성하였다. 보수패당은 부당하게 《3대조건》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며 금강산관광재개를 반대하는 저들의 고집스러운 자세에 대한 내외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그 방편으로 핵문제를 들고나왔다. 그들은 《3대조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관광재개를 할수 없다.》고 고약한 망발을 늘어놓았다. 지난 2월 8일에 있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의 전과정은 피뢰패당에게 관광재개에 꼬물만치도 관심이 없으며 오직 그것을 파탄시킬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대하는 태도는 곧 북남관계에 대한 태도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을 가로막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부정,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부정으로 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사람들은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요구하지만 그것을 바라지 않는자들은 금강산관광의 파탄을 노리고있다.

이렇게 볼 때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기어코 가로막아나서는 남조선집권세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는 매국역적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인 책동으로 하여 금강산관광이 더는 구원할 길이 없는 최악의 위기상태에 처한 오늘 우리 겨레가 내리게 되는 결론은 보수패당의 반통일대결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는것이다.

금강산관광의 길을 끝까지 막아나섬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랭혹하게 차버린 남조선 보수패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김 정 옥

민족의 어버이를 따르는 마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생을 조국통일위업수행에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시였다.》, 《통일운동사에 쌓으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리념써클모임에서 정치학교수들과 학생들이 터친 이 격정의 목소리들은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심의 분출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빛나는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자신께서 겨레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남녘겨레의 마음이 그리도 절절하고 열렬한것이다.

전남대학교의 학생들이 나눈 이런 이야기가 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은 자신께서 우리 민중들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참으로 김일성주석님의 한생은 민족의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 바쳐진 한생이였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 이남민중에게도 밝은 세상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통일이 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는데 통일을 위해 얼마나 심려하셨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는가.》

언제인가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자기 집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의 분렬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장장 수십년세월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해오시였다.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보아주시고 친필존함으로 비준하여주신 문건도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된것이라고 한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어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력사를 펼치시며 겨레를 조국통일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조국통일령도사는 오늘도 남녘겨레의 가슴가슴을 그이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마음으로 설레이게 한다.

《애국애족의 경륜과 높은 덕망을 지니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외세에 의해 분렬된 나라를 통일하는 길은 오직 민족대단결에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 원칙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련속 제시하시여 민족화합의 길,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민족적단합의 고귀한 전통은 앞으로도 이남민중들의 반미자주화운동과 조국통일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사와 더불어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남조선의 한 력사학교수가 토로한 이 심장의 목소리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 그리며 그이의 영생을 바라는 남녘인민들의 고결하고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다함없는 청송과 경모의 마음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믿고 따르며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통일애국의 길을 굳세게 걸어갈 신념과 의지로 불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올해를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로 하기 위한 대표자회의》

도 쿄 에 서 진 행

《올해를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로 하기 위한 대표자회의》가 25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중앙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총련본부 위원장들, 조선학교소재지 총련지부와 녀성동맹본부 위원장들, 조선대학교 학장, 각급 학교 교장들을 비롯한 교육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허종만책임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도약의 계기로 맞이하기 위해 《90일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때에 열린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자회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교육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총련의 민족교육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마련된 초급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정연한 체계가 갖추어진 민족교육이 없었다면 오늘의 총련조직도, 애족애국운동도 생각할수 없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총련일군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활동으로 조직건설과 애국활동의 출발점인 민족교육사업을 고수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 민족교육과 관련한 정세는 민족교육을 총련의 모든 애족애국사업의 중심에 놓고 조직력량을 총동원하여 이 사업에서부터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총련본부 및 지부위원장들과 각급 학교와 단체들, 각 본부의 민족교육대책위원회 일군들이 민족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조직적이며 동포사회적인 일대 집중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이 올해를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로 정하고 민족교육사업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선대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 학교를 고수하고 후대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투철한 사상정신과 책임성이 가져온 결과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영웅적위훈을 창조해가는 조국인민들과 보조를 맞추어 민족교육에서부터 새 전성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위기모면을 노린 비렬한 정치탄압

최근 남조선에서 진보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이 더욱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다. 말그대로 대대적인 진보세력숙청바람이 일기 시작한것이다.

남조선경찰당국이 얼마전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고문인 민족정기구현회 전 회장 홍갑표를 《보안법》위반혐의로 몰아 강제련행하고 그의 집을 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한데 이어 피뢰정보원이 남조선의 농민시인 정설교에게 《보안법》을 적용하여 그의 집을 수색하는 란동을 부린것은 단적인 실례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이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에 이처럼 열을 올리고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저들의 반역통치에 반기를 드는 진보세력들을 《좌파》의 감투를 씌워 모조리 말살하자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진보적단체들은 집권세력의 매국반역적죄행을 날날이 까밝히면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범민련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전교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로총을 비롯한 많은 진보적단체들이 피뢰당국의 부당한 반인민적정책들과 반공화국대결책동, 사대매국행위들을 반대규탄하여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고 남조선의 전체 애국적민중이 현 보수당국의 반역통치를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 단체들의 투쟁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것으로서 너무도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패당은 반역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처한 극도의 집권위기가 마치 진보세력들때문에 조성된것처럼 생각하면서 진보적단체들에 탄압의 예봉을 돌리고 파쑈적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폭압에 발광하고있다. 이미 범민련 남측본부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등이 《리적단체》로 몰려 가혹한 탄압을 당하였다. 파쑈도당은 진보세력탄압의 기본이 진보적단체들의 핵심지도성원들을 비롯한 지도급인물들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타산하고 거기에 폭압을 집중하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조선각계의 진보세력들을 와해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대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진보세력에 대한 폭압소동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불안에 잠긴 반역도배들의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지금껏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짓밟는 반인민적정책들을 강행실시하여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심판대에 오르게 된 보수패당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어떻게 하나 저들에게 유리하게 끌고나가기 위해 진보세력숙청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을 온갖 구실을 붙여 제거, 말살함으로써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반 《정부》 투쟁의 무풍지대를 조성하자는것이 보수패당의 흉심이다. 최근 피뢰경찰이 합법적정당인 민주로동당에 대한 정치사찰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한 사실과 검찰당국이 뢰물수수혐의를 조작하여 야당인사인 한명숙에 대한 재판소동을 벌리게 한 사실, 학생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놀음을 벌리고있는 사실 등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실태가 얼마나 험악하였으면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반〈정부〉세력을 〈좌파〉로 몰아 탄압하기 위한 당국의 조작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과거 독재자들이 저들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던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세력탄압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보수패당은 오산하고있다. 력대로 반역통치배들의 파쑈폭압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대답은 4.19인민봉기와 6월인민항쟁과 같은 전민항쟁이였다.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항쟁에 의해 반역도배들의 독재통치는 맥없이 무너지고말았다.

지금 《실용》독재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비롯한 평화통일운동단체들이 16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를 위한 257차 금요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12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라는자가 미8군사령부를 전쟁수행사령부로 전환할것이라고 떠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실현에 따라 미8군사령부를 실지 전쟁수행을 위한 야전군사령부로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군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것으로서 이 땅에 기어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행위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력사적으로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과 전쟁에만 열을 올려왔다고 하면서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사대매국세력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각계 민중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인권》 모략소동에 숨겨진 대결야망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보수패당이 제13차 유엔인권리사회에서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또다시 그 무슨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공동제안》하는 망동을 부렸다는것은 알려졌다. 피뢰당국이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 문제를 떠들며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결의안》을 조작한것은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와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지금껏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인민의 값높은 존엄과 인권에 대해 함부로 결고들면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그 리유는 한마디로 남조선사회전반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체제대결의 도수를 한층 강화하여 저들의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야망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이번에 피뢰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국제무대에서 또 한차례의 모략적인 반공화국《인권》 소동을 벌린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

외세의존에 환장한 남조선보수패당은 집권초기부터 동족을 해치기 위한 수법을 외세와의 공조에서 찾았다.

그 무슨 《인권》 문제라는것이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국제적으로 고립압살하기 위해 들고나오는 정치적모략의 산물이라는것은 이미 폭로되였다. 미국이 《북조선인권법》이라는데서 《북을 핵과 〈인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압박하는 기틀》, 《북의 〈체제붕괴〉를 위한 전략적수단》이라는 문구들을 조아박은것을 놓고보아도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진상을 알수 있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뼈속까지 들어차있는 현 보수집권세력은 선임자들도 꺼려한 상전의 불순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거리낌없이 가담해나서고있다. 보수패당이 집권후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이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을 때 이미 《선핵폐기》 소동과 함께 《인권》 소동을 반공화국대결의 기본수단으로 삼으려는 범죄적흉계는 뚜렷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이전 《정권》이 《북의 눈치만 보며 인권문제를 소홀히 했다.》느니,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다루어나갈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고아대면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유엔을 통한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기대를 걸면서 그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였다. 집권 첫해에는 유엔총회에서, 지난 2009년에는 유엔인권리사회에서 《북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어 올해에 또다시 유엔인권리사회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조작에 적극 가담해나선것이다. 이것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반공화국여론과 적대분위기를 극도로 고조시켜 외세와 함께 우리의 제도, 체제를 압살하려는 흉악한 계책의 산물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가장 참혹하게 말살하는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인 피뢰들은 사실상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걸고들 체면이 없다. 폭로된바와 같이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말살지옥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실용》 패거리들이 생존권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선 인민들을 무참히 불태워죽이고 《보안법》을 휘두르며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의 초보적인 자유마저 구속하고있는것은 이미 국제적인 비난거리로 되였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 각종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전반에 사람 못 살 세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만연되고 지어 철부지어린이들도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이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모지라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이렇게 최악의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그들이 외세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고 압살하기 위해 얼마나 파렴치하게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것이 저들의 자멸을 재촉하게 될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복 은 희

반인민적인 《4대강정비》 공사를 반대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 준비위원회가 22일 《4대강정비로 민생경제 파탄내는 현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당국의 《4대강정비》 공사강행이 인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것은 이 공사가 경제위기 회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독재 《정권》의 《치적》 쌓기에 불과하기때문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대운하건설》 계획을 《4대강정비》 공사로 둔갑시켜 이를 강행함으로써 그래도 《무엇인가 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민중의 환심을 사보려고 획책하고있다고 까밝혔다.

《4대강정비》는 결코 서민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재벌들에게 안겨주고 환경을 파괴하는 반민중적정책으로서 이를 환영하는것은 고위층관료배들과 재벌들뿐이라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서민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기만적인 말만 외워대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독재 《정부》를 심판하고 《4대강정비》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각계 민중모두가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당국의 로조탄압책동을 규탄하여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반공화국대결의 앞장에서 날뛰는 호전광들

피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증이 날로 무모해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피뢰군부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의 포연이 채 가셔지기도 전인 지난 4일 쌍방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비무장지대안에서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무장악당들은 전선동부의 우리측 민경초소를 향하여 90mm 무반동포사격을 가하였다. 지난해 11월 조선서해상에서 엄중한 무장도발사건을 일으켜 완화의 분위기를 맞이하던 북남관계를 다시금 파국에로 몰아넣은 피뢰호전광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또 하나의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은 그들의 군사적대결과 전쟁도발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해지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이것은 반공화국대결의 전면에 나서서 호전적광기를 부리고있는 피뢰군부의 망동과 주요하게 관련된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력사적죄악과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감을 놓고볼때 이러한 대결소동들은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하지만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밀리워 기를 펴지 못하던 호전광들이 《실용정권》의 출현과 함께 다시금 머리를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앞장에서 날뛰고있는 내막에 대해 파헤쳐보지 않을수 없다.

우선 현 보수《정권》의 립장과 정책이라는것이 우리에 대한 군부세력의 고질적인 적대관념과 일맥상통하다. 보수패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제일 환성을 지른자들이 바로 군부세력이다.

이런 일이 있다. 남조선당국자는 《실용》의 간판을 내걸자마자 관례대로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놀음을 벌렸다. 그런데 문제는 남조선당국자가 그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미 《청와대》 판계자를 통해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등의 문제에는 흥미가 없다는 립장을 《국방부》 패거리들에게 전달한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환성은 질렀지만 혹시나 하고 새 집권자의 눈치를 보아온 대결미치광이들이 그런 《반가운》 신호를 받았으니 얼마나 패재를 올렸겠는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기세가 오른 호전광들은 《지난 10년간은 정말 힘들었다.》느니, 《오랜 기간 불소화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회춘한 기분》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분별없이 날치기 시작하였다. 이자들은 그 누구를 《제압》하는 길이 《군사적우세》에 있다느니, 지금이야말로 《군사적우세로 북을 최대로 압박해야 할 때》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면서 림전태세강화와 도발적인 무력증강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실용정권》이 등장하기 바쁘게 당시 피뢰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가 《국회》에서 《선제타격》 폭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은것도 동족파의 대결을 표방하는 보수당국의 등장으로 군부세력의 어벌이 커졌기때문이였다. 이렇게 《실용》 패거리들은 기가 죽어있던 호전광들에게 입김을 불어넣고 그들의 꿈틀거리던 대결야망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남조선당국이 군부를 북침전쟁정책실현의 주되는 세력으로 보고 그 우두머리들을 보다 호전적인 인물들로 갈아치운것도 지금 피뢰군부가 우리를 반대하여 미친듯이 갈개고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보수세력은 집권후 군상층부를 《하나회》 출신들을 비롯한 친미보수적이며 대결에 환장한 악질호전분자들로 꾸리였다. 《하나회》로 말하면 전두환, 로태우를 비롯한 륙군사관학교 11기 졸업생들이 조직한 군부안의 《사조직》으로서 1979년의 《12.12숙군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후 《5, 6공》 군부독재체제구축의 기둥이 되였던 집단이다. 《하나회》 출신들이 원래 보수적이고 권력야욕이 강한것으로 하여 한때 남조선에서는 이자들이 군부요직등용에서 일정하게 배제되여왔다.

그러나 북침전쟁정책을 로골적으로 추구한 현 집권세력은 저들이 의거할 군부내세력이 다름아닌 《하나회》 출신들이라고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남조선당국은 《하나회》 출신들을 대표하는 극악한 대결광신자인 《성우회》(예비역장성들의 모임) 회장 리종구가 추천한자들을 군부의 요직들에 차곡차곡 박아넣기 시작했다. 결국 군단장, 사단장 등의 장성급자리들은 물론 《국방부》의 고위직들도 이자들이 차지하였다.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으로 길들여진 극우호전광들이 득실거리는 피뢰군부가 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전면에 나서서 광기를 부릴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국의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는 피뢰군부우두머리들은 집권자의 이른바 《통수리념》을 군사적힘으로 뒤받침》 할것이라고 떠들면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하고 새로운 북침전쟁각본들을 련이어 꾸며내는 등으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특히 이자들은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서해상과 군사분계선일대에 무력을 집중배치해놓았는가 하면 심지어 리성을 아예 잃어버리고 《전쟁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분별한 망발까지 쉐쳐댔다. 올해초에 있은 피뢰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폭언도 그러한 속에 튀여나온것이다.

남조선군부세력이 지금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전면에 나서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갈수록 무모하게 벌리고있는것이 바로 현 집권세력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북정책》과 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사실들은 남조선보수당국의 대결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는 갈수록 격화되여 나중에는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송 영 석

조선반도의 랭전유물청산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가 념원하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력사에 의하여 부정된 랭전시대의 유물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력사의 흐름을 과거에로 되돌려세우려는 온갖 책동을 저지시켜야 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무대에서 평등하게 자주적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민주화하여야 합니다.》

유럽나라들에서 랭전시대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 국제적주목을 끌고있다.

외신보도들에 의하면 최근 영국 외무성 부상은 《서유럽동맹》이 오늘의 현실과 유럽안전구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영국이 이 《동맹》으로부터 탈퇴할데 대한 립장을 표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동맹》 성원국들이 《동맹》해체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프랑스 외무유럽문제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러한 결정은 통일적인 유럽건설과 《리스봉조약》의 발효로 통일적인 유럽건설에서 성과를 거둔것과 관련한 론리적인 귀결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후 이전 쏘련을 반대하여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조직되였던 《서유럽동맹》은 사라지게 되였다.

《서유럽동맹》은 랭전시대의 유물로서 청산대상이다. 이번에 이 《동맹》이 해체된것은 그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힘의 대결을 몰아왔던 랭전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새 세기 지구상에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념원하고있다. 특히 그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랭전시대의 유물이 청산됨으로써 전쟁위험이 가셔지고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신문 《로테파네》 3월호는 조선전쟁이 끝난지 근 60년이 되여오지만 조선반도에는 여전히 랭전의 유물인 정전협정이 남아있어 정세는 긴장되고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고있다고 하면서 평화협정체결은 랭전의 마지막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요구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랭전유물을 청산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 랭전이 유지강화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랭전유물의 하나이다.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적교두보로 틀어쥐고 조선반도와 아시아를 제패할 야망밑에 1945년 9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군은 그 첫날부터 조선반도지배야망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기 위해 침략전쟁의 포성까지 터친 남조선강점 미군은 오늘도 남조선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수만명의 미군과 수십개의 대규모미군기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미군사시설들이 있다. 세계적으로 남조선과 같이 작은 지역에 그처럼 많은 미군과 군사기지들이 조밀하게 밀집되여있는 곳은 없다.

조선반도의 랭전유물의 다른 하나인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1950년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미명하에 비법적으로 조작한 침략적군사기구이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조선전쟁의 불집을 터친 미국은 미군과 함께 15개의 추종국가무력을 조선전쟁에 들이밀면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였다. 정전후 《유엔군사령부》에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들은 유엔의 그 어떤 결정도 통지도 없이 자기 나라 군대를 철수시켰다. 현재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이라는것은 미군뿐이며 따라서 《유엔군사령부》가 유지되여야 할 명분은 없다. 그런데도 미제는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계속 유지강화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의 최대랭전유물은 조선정전협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랭전을 선포하고 반사회주의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행사로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날강도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한 미국은 영웅적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항전에 부딪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말았다. 미국은 저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조선반도에는 여전히 랭전유물인 낡은 정전협정이 남아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는 기술적으로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다.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 역시 랭전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1953년 7월초 조선전쟁에서의 참패가 기정사실화되자 미제호전광들은 남조선친미사대매국노들과 영구강점을 위한 모의판을 벌려놓았다. 이런 속에 그해 10월 1일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막는다는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이 조작되였다. 이 《조약》을 통해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영구강점을 《합법화》해놓은 미제는 그후 남조선을 저들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면서 끊임없는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왔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이 계속 조성되고있는것은 이와 같은 랭전유물들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원래 랭전의 종식과 함께 조선반도에서도 그 낡은 유물들이 청산되였어야 하였다. 그런데 랭전이 종식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의 랭전유물청산은 더는 미룰수 없는 급선무이다.

조선반도에서 랭전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이 지역이 가장 첨예한 힘의 대결장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미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무력축감을 진행하면서도 조선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하면서 새로운 조선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하고있다.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따라 남조선과 일본등 조선반도주변에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미군기동타격무력이 집중전개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주도하의 합동군사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력량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본토와 일본의 미군기지들의 무력까지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강행한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의 긴박성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이 지역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폭발직전의 시한탄이나 다름없다. 미호전광들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핵무기를 포함하여 저들이 가지고있는 각종 현대적무기들을 사용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조선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착잡하게 얽혀있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이 타오르는 경우 그것이 련쇄반응을 일으켜 쉽사리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헤아릴수 없는 핵재난을 입을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인류문명이 엄중히 파괴될것이다.

조선반도의 긴박한 정세를 완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이 지역과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조선전쟁의 발발을 가져오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랭전시대의 유물들을 청산해야 이 지역이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지대로 될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정세를 안정시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랭전유물을 청산하여야 할 절박성은 현시대의 기본흐름과도 관련된다.

랭전종식이후 국제무대에서는 일련의 긍정적변화들이 일어났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분쟁과 대결국면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발전을 다그쳐나가고있다. 뿌리깊은 적대적감정을 가지고 대립관계에 있던 나라와 세력들사이에도 화해와 관계개선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제안들이 발기되고있다.

현시대는 평화와 발전의 시대이다.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발전이 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다.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랭전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매우 긴절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종식되고 조선정전체계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바꾸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랭전시대의 유물들을 청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로 된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나라 외무성이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한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진행된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의장단회의 참가자들은 평화협정체결로 비핵화를 포함한 조미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제안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시대적흐름과 부합되는 정당한 제안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반도정세와 조미관계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릴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와 세계정세발전에는 물론 미국에도 리로울것이다.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립장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랭전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는데서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랭전시대의 유물을 하루빨리 청산할데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강화하려 한다면 미국은 안팎으로 더욱 커다란 규탄배격을 받으며 국제적고립과 파멸의 길을 재촉하게 될것이다.

김 종 손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을 축하하여

웰남국방성에서 우리 나라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을 축하하여 웰남 국방성에서 22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유엔안보리사회개혁을 주장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22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안보리사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서방렬강들이 유엔안보리사회를 자기들의 리익을 충족시키고 작은 나라들을 처벌하는데 악용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서방이 이란과 짐바브웨정부의 정책들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두 나라가 다같이 반제, 반식민주의적인 립장을 가지고있는데 대해 강조하고 유엔을 정치적압력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들을 강력히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주장을 배격

레바논국방상이 2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수리아가 레바논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에 《스쿠드》미싸일을 넘겨주었다고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무근거한것으로 락인하였다.

레바논군부는 이를 증명하는 그 어떤 자료도 입수한것이 없다고 그는 밝혔다.

본사기자

아랍인수감자석방을 요구하는 초불행진 진행

수리아의 디마스끄에서 21일 이스라엘의 감옥들에 갇혀있는 아랍인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초불행진이 진행되였다.

행진에는 수백명의 수리아인들과 팔레스티나인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당국이 많은 아랍인들을 장기간 감옥에 가두어두고 학대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그들을 당장 석방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협조

알제리와 중국이 14일 건설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15일 웰남과 만나는 예술, 교고학분야에서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쓰르비아와 중국은 다리건설에 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의 평화적핵기술개발권리를 지지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셀바가 22일 이란의 평화적핵기술개발권리를 지지하는 자기 나라 정부의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그는 이란은 평화적목적의 핵에네르기를 리용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그 권리는 모든 나라들에 반드시 보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란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종차별조치 비난

일엘 쌀바도르외무성이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미국의 인종차별조치를 비난하였다.

성명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주의회가 채택한 이주민법이 피부색과 민족출신에 따른 차별행위를 더욱 조장시키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엘 쌀바도르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일미국주재 메히꼬대사관이 21일 미행정부에 보낸 편지에서 미국의 그릇된 이주민정책을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 아리조나주의회가 이주민들을 제멋대로 범죄자로 몰아붙일수 있게 하는 법을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편지는 그것을 인종차별행위를 더욱 조장시키는 위험한것으로 락인하였다. 편지는 벌써부터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이 법이 앞으로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집회

일본 오끼나와현에서 25일 미군기지철폐를 위한 대규모적인 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약 9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구호들이 씌여진 프랑카드와 기발들을 들고 후덴마미군기지를 현밖으로 당장 내갈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연설한 오끼나와현지사와 나고시장은 후덴마미군기지를 절대로 현에 두지 않으려는 립장을 다시금 밝혔다.

본사기자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둘러싼 갈등

최근 일본수상 하토야마가 《핵안보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행각하였다. 그런데 그는 예상외로 미국상전의 랭대를 받았다.

처음부터 미집권자는 다른 나라 수뇌자들과는 공식회담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수뇌자와의 공식회담은 예견도 하지 않았었다. 하는 수없이 일본수상은 미집권자와 만찬회장에서 불과 10분간 비공식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야말로 미집권자가 여가시간에 한 심심풀이식의 회담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아마 력사적으로 형성된 일미동맹관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아연해할것이다. 그도그럴것이 미일관계라고 하면 미국과 일본이 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까운 맹우관계》라고 자랑해왔기때문이다.

하다면 무엇이 미국의 대일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는가. 기본은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관련되여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민주당은 집권전부터 자민당정권과 미국사이에 합의를 본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의 재검토를 주요선거공약의 하나로 내세웠고 집권후에는 그것을 리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였다.

미국이 민주당정권에 대고 야비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미전에 미일정부가 합의한 후덴마미군기지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압력을 가하였지만 일본은 저들나름대로 나갔다.

일본은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국민들의 의향에 따라 자기들이 결심할 문제라고 하면서 비틀어왔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일종의 구슬리는 전술을 썼다.

일본측은 미국이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와 관련한 쌍무합의를 리행할것을 요구할 때마다 《문제의 심각성을 리해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는 미국의 요구는 뒤전에 밀어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들의 안을 내놓고 실무자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나왔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를 두고 미국이 가만있을리 만무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제기한 안들이 미군기지를 운영하는데서 반드시 필요한 현지와의 합의가 없을뿐아니라 그것이 미숙하기 그지없는 내용들로 일관되여있다고 하면서 불만을 터치였다. 미국은 일본이 제기한 실무자협의에는 애당초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였다. 마주앉았댔자 그 식이 장식이라는것이다. 그러자 일본은 선손을 써서 《뿔은 미국에 가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이 안되는 원인이 미국에 있는듯이 여론화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미국의 기분을 잡쳐놓았다.

얼마전에는 일본외상 오까다가 미국에 날아가 그러지 않아도 일본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사가 뒤틀려하는 상전의 감정을 또다시 건드려놓았다. 그가 미국방장관 게이쯔와의 회담때 후덴마미군기지이설안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전에 일미정부가 합의한 현행안을 슬쩍 빼놓았던것이다.

이를 두고 게이쯔가 노하여 불만을 터뜨렸다.

바빠난 오까다는 미국이 《기타안도 모두 검토해주기 바란다.》느니 뭐니 하면서 빌붙는 식으로 나오다가 뻐젓이 《현행안의 실현은 곤난하다.》고 찍어서 말하였다. 후덴마미군기지이설에 관한 현행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9일 일본수상은 미국잡지 《타임》과의 회견에서 일본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속적으로 외교를 진행해왔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말하는대로 하는것보다도 서로 론의를 통해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하였다.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하지 않겠다는 소리이다. 그의 발언은 미국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의 정계에서는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경주장들이 왕왕 울려나왔다. 그러한 립장이 최근 만찬회장에서 있은 미집권자와 일본당국자사이의 비공식회담에 그대로 반영되였다.

이번에 미집권자는 교압적인 자세에서 하토야마를 대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자와 후덴마미군기지문제만을 론하면서 5월말까지 일본이 무조건 결판을 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확언하자 미집권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척된것이 없지 않는가. 끝까지 해낼수 있는가.》고 따져물었다.

지금까지의 일은 그렇다치고 문제는 그들이 약속한대로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겠는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해 누구나 도리질하고있다.

미국은 일본을 믿지 않고있다. 그 리유인즉은 이번에 일본수상이 약속은 하였지만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지난 시기에도 약속을 어긴 전적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라는것, 또 일본당국자가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는것이다.

미국의 출판물들도 로골적인 불신을 표시하고있다.

최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일본수상 하토야마를 《핵안보수뇌자회의》에서의 가장 큰 패자로 혹평한것이 그 단적실례이다. 신문은 글에서 하토야마를 《불운하고 어리석은 일본수상》이라고 조롱하면서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와 관련하여 그를 전혀 믿을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의 실정을 놓고보아도 실지로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에서 미국과 합의점을 찾기 힘들게 되여있다. 그것은 일본이 점찍은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가 미국의 요구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 일본정부가 제안하고있는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들이 기지운영면에서 기준을 충족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이미전에 합의한 현행안을 고집해온 미국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것이라는것이 여론의 견해이다.

설사 일본이 미국을 설복하여 저들의 후덴마미군기지이설안을 실행하자고 해도 해당 현지자치체의 리해를 얻기가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하여 강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면 민주당정권의 운명이 위태로와질수 있다.

민주당과 집권련립을 이루고있는 사민당과 국민신당은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에서 현지자치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말까지 후덴마미군기지문제가 결착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일본이 안을 제기하면 미국이 거절하는 구도가 그려져있는 조건에서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둘러싸고 일미관계가 더욱 금이 가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학 남

혹심한 가물에 대처하여

혹심한 가물은 알곡생산에 큰 지장을 주기마련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물로 중국의 서남부지역이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었다.

찌는듯 한 더위로 귀주, 운남, 사천, 중경, 광서에서는 500만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가물피해를 받은 지역들에서 식량생산이 감소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그러나 중국 서남부의 한 외진 현에서는 이번에 들이닥친 100년래의 최악의 가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을에 알곡생산량이 높아질것으로 보고있다. 그 지방이 운남성 등충현이다. 야산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이 현에서는 여름곡식으로 밀과 보리를 심고 가을수확작물로는 벼를 심고있다.

등충현의 한 농업일군은 자기 현은 물절약조치를 취하고 물소요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작물을 재배하여 년간 알곡생산량을 늘일 계획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올해 알곡을 지난해보다 3.6% 더 낼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등충현의 영안에 있는 50대의 한 농민은 새 논판에 옮기기 위한 준비로 마른 모판에 벼종자를 뿌렸다. 이것을 《건모기르기》라고 한다. 농민은 《건모기르기》는 《물모기르기》에 비해 물이 3분의 2나 적게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7년째 《건모기르기》를 하고있는데 모가 실하고 높은 소출을 내고있다고 자랑하였다.

보통 비가 많이 내리는 운남성에서 《물모기르기》는 전통적인 농법이지만 운남성의 동북부와 중부에 있는 대요, 남화와 같은 현들에서는 《건모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있다.

대요현의 시양진에서는 올해에 2000무의 농경지에 건모를 내려 하고있으며 등충현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1만무 더 많은 4만무에 건모를 보장할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등충현정부는 무당 알곡을 평균 200kg 더 내기 위해 9만무에 물소요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냉이를 심을 계획이라고 한다.

현정부는 소출을 늘이기 위해 감자나 콩의 사이작물로 강냉이를 심도록 장려하고있다.

등충현에서의 농사방법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본사기자 조 성 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토지정리사업

중국에서 토지정리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나라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이 사업을 통해 26만 9000ha의 부침땅을 새로 얻어냈다.

원유증산노력

쿠웨이트에서 원유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현재 나라의 하루 원유생산능력은 300만bbl에 달하고있다. 정부는 2020년에 가서 하루평균 400만bbl의 원유를 생산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새로운 유전개발을 다그칠것을 계획하고있다.

주단수출

이란에서 주단수출을 늘이고있다.

지난해 바흐티아리—챠히르마힐주에서만도 20만㎡의 손으로 짠 주단을 수출하였다.

야생동물보호조치

남아프리카에서 21일 야생동물보호기구가 새로 발족되였다.

이 나라 물 및 환경사업상은 기구를 내온 목적이 서우를 비롯한 보호동물들에 대한 밀렵행위를 막고 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자연동물원구역에서 사냥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밀렵자들을 엄격히 단속처벌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가스가공공장 조업

수리아에서 홈스에 가스가공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조업하였다. 22일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공장조업식이 진행되였다. 공장에서는 하루에 250만㎥의 정제가스와 120t의 가정용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본사기자

규탄배격받는 이스라엘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감자문제상이 22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티나인수감자를 무참히 살해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팔레스티나인수감자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그가 척추에 심한 타격을 받고 살해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당국은 이 살인범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만행을 고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종교문제상이 14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음흉한 책동을 규탄배격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과 유태인《정착민》들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한 사원에 반이슬람교구호들을 써붙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여기에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정치적분쟁을 종교적인 분쟁으로 몰아가려는 기도가 깔려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인들은 이스라엘의 무모한 행위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에브 에레카트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수상이 꾸드스에서의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중지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유태인《정착촌》건설을 당장 중지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홍역피해

아프리카의 서부와 중부지역에서 홍역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22일 유엔아동기금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이 지역들의 16개 나라에서 2만 2000명이상의 홍역환자가 등록되였으며 그중 18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나라들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한다.

여러 나라에서 경제 침체

—영국중앙통계국은 22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3월말에 끝난 2009—2010회계년도에 나라의 예산적자가 1528억 4000만£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8—2009회계년도에 비해 659억 3000만£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항공운수업체인《콘티넨털 애어라인즈》회사가 22일 올해 1.4분기에 기업체에서 초래된 손실액이 1억 4600만US$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전기통신업체인《케이디디아이》회사에서는 올해 3월말에 끝난 2009회계년도에 리윤이 그전 회계년도에 비해 4.5% 감소되였다 한다.

—그리스에서 올해 2월에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2% 감소되였다.

본사기자

ㄱ-01071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